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믿음, 소망, 사랑으로 미래사회 변화를 만드는 참된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605-1115

제18322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9년 3월 23일 (음력 2월 27일) 월요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급부상'

국회 이번주 중 특위 구성…정부 '시·군통합 특례법' 내달 입법예고

주민 반발 등 진통 예고

정부와 정치권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서 현실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행정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해당 자치단체 및 주민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 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공언하고 정치권에서도 이번주 내에 국회에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구성을 마무리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0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올해 내 결단을 내려 내년 지방선거 전에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국회는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을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으로 내정한 데 이어 이번주까지 여야 간사를 선임하는 등 특위 구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회에 특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국무총리실 소속의 자문기구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와 실무위를 발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전국적인 차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군 자율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법을 다음달 입법예고한 뒤 5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나라당 허 최고위원은 최근 "지방행정체제개편은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 위해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입법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밝힌 바 있어 국회 특위 구성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론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뜻대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여야 정치권이 국토 이용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다는 명분에는 동의하면서도 개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광역시·도 단체장들의 반대와 개편 내용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난 6일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인 도(道) 폐지에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정부가 당면한 경제난 해결보다는 행정체제개편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광역시·도 공무원들마저 조직 축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집단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현실화 단계까지는 극심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내년 이후 닥칠 현 정권의 레임덕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편의 명분은 있지만 정치적 목적의 개편에는 야당이 협조할 수 없고 다만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한국 WBC 결승 진출

한국 10 : 2 베네수엘라

한국야구대표팀 투수 윤석민이 2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준결승에서 한국의 결승 진출이 확정되자 그라운드로 달려나오며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한국은 베네수엘라를 10-2로 대파했다. ▶윤석민 전화 인터뷰 18면 /연합뉴스

한국의 100% 완승이었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2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베네수엘라와 준결승에서 10-2 대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관련기사 18·19면〉

승부는 사실상 1회에 갈렸다. 선두타자 이용규가 상대 선발 카를로스 실바와 풀카운트까지 가는 신경전 끝에 볼넷을 얻어 출루한 뒤, 베네수엘라의 우익수 어브레이유가 정근우의 평범한 플라이를 놓친 사이 2루를 파고들었다.

무사 1·2루에서 김현수의 좌전 안타로 선취점을 올린 한국은 김태균의 안타로 무사 만루의 기회를 잡았고, 이대호의 투수 강습 안타로 2번째 점수를 기록했다. 이어 4번타자 추신수가 승리를 결정짓는 3점 홈런을 터뜨리면서 한국은 1회 대거 5점을 뽑아냈다.

승기를 잡은 한국은 3회 김태균의 투런포를 포함해 10개의 안타로 10점을 만들며 상대 마운드를 초토화시켰고, 한국의 공습에 당황한 베네수엘라는 실책 5개를 범하며 자멸했다.

한국 선발 윤석민은 7회 선두타자 카를로스에게 솔로 홈런을 포함, 7개의 안타를 맞았지만 배짱 투구로 베네수엘라의 막강 타선을 2실점으로 묶으며 승리를 이끌었다.

한국은 24일 오전 10시30분 미국-일본의 준결승 승자와 세계 야구 패권을 놓고 최후의 격돌을 벌이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중소형 댐 73개 만든다

빗물 저장 물 효율 관리

전남도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73개의 중소형 댐 건설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22일 효율적인 물관리와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 사전대비를 위해 빗물을 모아 저장할 수 있는 중소형 댐 건설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정부 댐 관련보고서와 자체 보유자료 및 조사를 근거로 중소형 댐 건설을 위한 예비후보지 117곳을 선정한 뒤 위성영상을 활용해 유역면적과 유효저수량·농업 진흥지역 편입 여부·수몰세대수·저수용량대비 댐 길이 등의 경제성을 검토해왔다.

검토 결과 농업용수용의 경우 담양 무정면 평지리 오례 댐과 생활용수용은 구례 문창면 중산리 문척제 등 저수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73곳을 최종 선정했다.

전남도는 최종 선정된 지역에 대해 댐 건설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 실·국 소관별로 업무를 분담, 중앙부처에 지원을 건의하는 등 댐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서해 '돈되는 고기' 확 줄었다

남획·수온 상승에 참조기·갈치 어획량 급감

서해안을 대표하는 주요 어종들의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어민들의 시름이 커질 전망이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 따르면 바지락·피조개·꼬막 등 패류 어획비율은 소량 증가하고 있지만 서해안을 대표하는 꽃게·참조기·주꾸미 등의 주요 어종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해 일반해면어업의 어획량은 1970년대 약 20만t에서 1980년대 평균 25만t으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최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14%, 2008년에는 1980년대 대비 52%인 13만t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80년대 이전 서해 전체 어획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참조기와 갈치의 어획비율이 지난해는 13%이하로 줄었다.

이처럼 서해에서의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은 전반적인 연근해 어획량의 감소와 더불어 서해 어획대상군의 회유특성과 관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해 주요 어업자원이 대형 고급어종에서 수명이 짧은 중·소형의 저급어종으로 전환되는 현상도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익성 어종을 집중적으로 어획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됐다.

또 최근 30년 동안 우리나라 연근해 수온이 1~2℃ 상승한 수온의 변화도 주요 어획종의 변화에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편, 지난해 멸치 어획량은 2만4천여t으로 서해 어류 전체 어획량의 40%를 차지해 멸치가 서해 주요 어업자원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서울시니어스타워(주)가
바로 대한민국 실버타운의 역사입니다.
국내 실버타운의 역사와 기존의 틀이 된 서울시니어스타워는 15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사회복지에 시대요구에 맞는 주거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도적 브랜드 입니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